

선교지에서 온 편지_에티오피아 교회 건축현장 소식_선교지에서 21 번째 드리는 편지

2014 년 6-7 월 Misson Hills Africa by Prayer

PO Box 127 Addis Ababa Ethiopia +251-911 470962 cushpark@gmail.com www.ethiopiamission.org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_ 마가복음 16:15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11 번째 교회 건축완공 헌당식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인근에서 모인 수많은 원주민들과 축하하러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소 한마리 잡고 커피와 인젤라로 온성도가 기쁨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은혜가운데 헬리 미션이 시작되어 선교의 유용한 헬리콥터로 다녀왔습니다. 소도 한마리 잡고, 타더서 전도사님이 가져온 이르가-차페 커피와 손으로 먹는 현지 음식인 인젤라와 현지식 보리빵으로 온 주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헌당식 날 인근에서 참석한 15 명의 성도가 결신도 했습니다.



저희 팀은 4 시간 산악길을 걸어서 가고, 몸이 연약한 팀은 5 인승 헬리 콥터로 들어 갔습니다. 이번 헬리콥터로 들어가는길에 모가르 강 건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산속의 원주민들을 만나고 교회 개척의 가능성을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기때에는 이곳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산속 골짜기의 4 등선의 4 지역의 교회 개척 건축 가능 지역을 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좀더 수월한 Helli Mission 의 헬리콥터를 통해 좀더 쉽게 들어갈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과 우물파가, 교회 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건축된 망고나무 유치원과 교회에 의자(5 인석, 1 개 75 볼)들이 필요합니다.
2. 망고나무 유치원 건축을 통해 인근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화장실 건축_7,000 볼)과 도서관 건축(28,000 볼)을 위해
- 2.그 동안 흉년으로, 그리고 소우기 농사철에 음식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적당한 비가 올수 있도록
3. 물이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우물(7,000 볼-15,000 볼)을 파줄수 있도록
4. 기술학교 프로젝트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5.성경 추가 인쇄 프로젝트를 위해(10,000 권 추가 인쇄, 권당 인쇄 5 볼)
6.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1:1 연결 후원사역과 7.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중 살아계시는 250 명의 열악한 집 개축을 위해 함께 섬길수 있는 날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상공에서 본 12 번째 개척 교회, 연합 성가대, 본당, 전교인 단체, 망고 나무 유치원, 1:1 후언연결 아이, 사진등입니다.

기도에 감사드리며, 아디스 아바바에서 박종국 장은혜(대선,지연) 선교사 드림

선교 간증_선교 사역 20 년 in Africa/박종국 선교사 Mission Life in Africa 20(1994-2014)

나는 20 대 초에 인생의 뒀안길에서 헤메고 있을때, 미래의 인생을 고민하며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을 향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 타고, 또 다시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청량리 역에서 완행 기차에



몸을 싣고 강원도 산속에 있는 황지, Jesus Abby 라는 예수원이었다. 가는날은 여름 장마비가 내리고, 완행기차역에서는 이중환의 팝스 음악이 들리고 차창가에는 빗물이 가득내려와 동행을 알리는 표시였다. 기차역에서 내려 시골 버스를 타고 인근까지 다가가 30 여분 동안 목적지를 물어 물어 개울가를 건너 산속으로 들어가니 돌과 통나무로 만든 작은 건물들에 도착했다. 나는 예수원에 3 일을 머무는 동안, 예수원의 규율에 따라 노동을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다짐했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겠다고.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 감사하게도 대천덕 원장께서 잠시 보자고 해서 30 여분 동안

젊은이의 인생상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성경 요한복음 15 장의 말씀<요 15:7>"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을 한국말로 유창하게 읽어 주시며 "청년 박종국형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개척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Pioneer_개척자" 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주님의 손 앞에 내어 드리고 따라가기로했다. 그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강도사가 되어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 번역 훈련을 받아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

아프리카로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을 하고 우유부단하던 삶을 살던 내게, 하나님께서 세번의 죽음의 위기 사건을 통해



재헌신하게 하셨다. 한번은 군에서 야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해 8 시간이나 기절해서 대구의 미 8 군병원에 15 일이나 입원한 후에, 목사의 길에 헌신했던 나를 깨우치셔서 재헌신하게 하셨고. 또 한번은 왕성교회 2 번째 단기선교팀을 이끌고 동유럽을 다녀온 후, 88 고속도로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던중 교통사고를 통해 선교사로 재헌신하게 하셨다.

세번째는 어머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슬픔을 잊기 위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만하다가, 말라리아와 선교지의 질병이무엇인지도 모른채 고통으로 고생만하다고 결국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여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야 하는 지 절망감속에 있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선교지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교지로 다시 복귀했을 때, 죽음의 기로에 있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의 지경을 더욱 확장 시키셨다.

20 년 동안의 감사할것들,

첫째는, 에티오피아 현지어 성경 10,000 권 인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70 센트가 15 세 이하 젊은이들이다. 가는 곳마다 젊은 아이들이 성경책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10,000 권의 공용어 암하릭과 영어 합본의 성경(권당 5 볼)을 인쇄하기 위해 2014 년에 10,000 권이 추가로 모금 되어야 인쇄가 마쳐질 수 있다. 성경 인쇄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지난 2013 년에 시카고의 교회가 연합해서 6,000 권의 성경을 인쇄하고 무료로 나눠질수 있도록 부활절 연합으로 특별 헌금을 해주셨다. 이에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 감사 드린다.



둘째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돕기 프로젝트이다. 2006 년에 아디스 아바바 공원에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을 위해 기념탑과 기념회관을 세워주었는데 올해가 6. 25 한국전 전쟁 종전 63 주년이다. 지난 63 년전에 한국에 6,037 명의 에티오피아 하일레 술라시에 황제의 근위대를 한국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해주었다. 한국에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123 명이 목숨을 내주었고, 536 명의 중상을 입었다. 이중 250 여명이 살아계신다. 작년에 이중 4 분을 모시고 한국에 63 년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과거 한국 전 당시에 한국은 대부분 길도 없었고 음식도 없고 산과 비포장 길만 가득하고, 굶주린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연발했다. 혹시 우리가 한국에 온것이 아니라 이웃땅 일본에 온것이 아닌지 물어보신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도착해서 적응훈련을 받고 한국 동부 전선으로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한국인들에게서 뿐아니라 에티오피아인들에게서도 잊혀진 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은 한국전 참전후 공산화가 되어 17 년동안 북한을 대항해 싸웠다고 직장과 집을 빼앗아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해 가난의 연속을 이어가고 계신다. 이들은 특정 보조금없이 방 한 칸을 정부에서 임대해 10 여명의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보신 뜻있는 분들이 참전용사들의 남은 흠집을 재 보수하는 것을 돕고 있다.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세째는, 에티오피아 교회 목회자 훈련 프로젝트이다. 70 년 역사의 현지 생명의 말씀 교단에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부흥이 되어 8,000 교회와 6,500 만명의 성도가 있다. 현재 현지 교단과 함께 훈련된 목회자가 양성되어 질 수 있도록 목사 안수 훈련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네째, 교회가 없는 미전도 산속에 찾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유치원과 학교를 세우고 있다. 많은 미전도 부족을 탐사하고 이들의 필요를 돕고 있다. 물과 우물이 필요한곳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의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파이니어로 살기로했다. 그래서인지 난 항상 원가를 새롭게



만들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따라오는 아내는 힘들어 한다. 일은 내가 벌리고 정리는 아내가 도맡아 해야하니... 병원과 교육시설이 없는 나라로 간다는것은 무모한 짓일것이다. 말라리아와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개와 짐승에게 예방주사를 주는 시대에 여전히 무모한 선교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살수 밖에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따라 온 가족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나아간다. 한번은 아내의 눈에 2 개의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침입해와 실명의 위기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 그래서 인근나라로 긴급 의료

피난을 떠나 실명 위기를 넘기기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교지를 결정할때도 한국사람이 가장 없는곳으로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거세지는 곳으로 선교 사역을 조금만해도 열매를 볼수 있는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쉽지 않았다. 가족 자녀 너무나 먼 고국, 등... 20 년전에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대선이와 딸 지연이를 데리고 아프리로 간지 이제 20 년이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과 개미들을 연구하며 살던 아들 대선이는 NY CPA 가 되어 뉴욕의 E&Y 에서 일하고 딸은 미시건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서 “The School of Phildelphia” 교사로 일하며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땅에 구애하는 일본과 중국

최근 신문 지상에 일본과 중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구애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원조와 기술을 가지고 서로 먼저 아프리카 나라들을 돕겠다고 총리를 보내고 외무장관을 보내 서로 먼저 약속을 한다는 기사들이 넘치고 있다, 수많은 광물 자원과 석유, 저임금의 노동력 그리고 개발되어야 할 유일한 나라들이 아프리카임을 저들은 먼저 전략을 세워 다가가고 있다.

그곳이 아프리카 땅이다. 아프리카중에서도 가장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있던 나라 에티오피아! 성경에 60 번 이상 언급된 나라,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이다. 지난해 에티오피아 항공이 인천에서 아디스 아바바까지 직항이 시작 되었고, 와싱턴 DC 와 토론토까지 취항을 시작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의 나이로비 케냐까지 직항이 시작되었으니 세계가 좁고 아프리카 땅까지 진출할수 있어 감사한 일임이 아닐수 없다. 13 시간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를 아프리카로 초대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_ 마가복음 16:15. 박종국 선교사 2014